

전염성 후두기관염

원 송 대
 <한국카아길기술지도부장>

닭의 급성 호흡기 질병으로 심한 기침과 호흡곤란 그리고 목구멍소리를 특징으로 하는 허피스 바이러스(herpes virus)의 속하는 병독에 의해 발병되는 병이다. 다행히 이병이 국내에서는 발병보고가 없으나 서구에서는 이병이 유행하여 양계업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으며 가까운 일본도 1964년에 발병 보고가 있었으므로 우리나라 양계업계에도 경종을 주는 질병의 하나이다.

전파는 호흡기와 결막에 바이러스가 침입하여 6~12일간의 잠복기를 갖고 있다가 발병이 된다. 병계체내에서의 바이러스의 분포는 호흡기 통로와 결막에 한정되어 있음이 특징이다. 전염원은 외국서 도입된 병계로부터 감염원이 될 수 있고 이것이 비후에 간접적인 전파 매개로 오염되게 된다. 그 전파 속도는 뉴캐슬병 보다는 늦으나 C.R.D 보다는 훨씬 빠르다. 이 바이러스는 온도에 약하므로 주로 가을부터 봄사이에 많이 유행한다.

증상(Symptoms)

다른 호흡기 질병의 초기에도 콧구멍과 눈에서 분비물이 나오는 것이 통상이나 이 전염성 후두기관염에서는 그 정도가 심하여 거품 같은 삼출물이 눈과 콧구멍을 매우다 시피 한다. 이런 외부증상이 하루쯤 경과하면서 재치기를 하고 골골하는 목구멍 소리를 내고 좀 심해지면 공기를 들이킬 때는 목을 쪽뻗고 내실 때는 목을 웅크리는 동작을 반복한다. 이때 기침속에는 혈액이 묻은 가래가 뱉어내게 되어 케이지와 계사벽에 붙어있는 수가 있다. 산란율은 발병후 4~5

일쯤부터 한 20~50% 떨어지다가 관리를 잘개선해주면 2주후에 증상이 완화해지고 4주쯤 지나면 산란율이 회복된다. 병세의 경과와 닭의 개체 건강에 따라 다르다. 보통 폐사율은 0~60%(평균 13%)이지만 이중 50%가 질식사로 죽게 된다. 이 전염성기관염과 다른 전염병(전염성코라이자나 만성호흡기병등)과 혼합감염시에는 더욱 심한 피해를 입게 된다.

병리증상

기관과 기관지에 카달성 또는 건락성 삼출물이 보이고 심한 경우 이 삼출물이 기관지를 메울 정도로 차있다. 병초기에는 기도에는 출혈점이 보이고 혈액모양의 가래가 붙어있다. 이 병으로 폐사된 닭의 기관은 점막과 삼출물이 쉽게 벗겨질 정도로 후두기관 전체에 두툼하게 붙어 있는 것이 다른 호흡기 질병과 다른 점이다.

예방치료

아직 한국서 발생보고가 없으므로 수입계의 철저한 검역만으로 이 병의 침입을 막는 것이라 생각된다. 외국에서는 백신접종으로 좋은 효과를 거둔다. 주로 8주령과 12주령 사이에 접종하는데 그 방법은 닭의 총배설강점막(cloacal mucosa)에 부라쉬로 약을 칠한다. 접종후 5일쯤 되면 총배설강벽에 작은 혹이 생기면 면역이된 것이다. 물론 발두가 앞된 닭은 보균계가 되지 않는다. 발생지역에서는 모든 닭을 이와같이 접종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